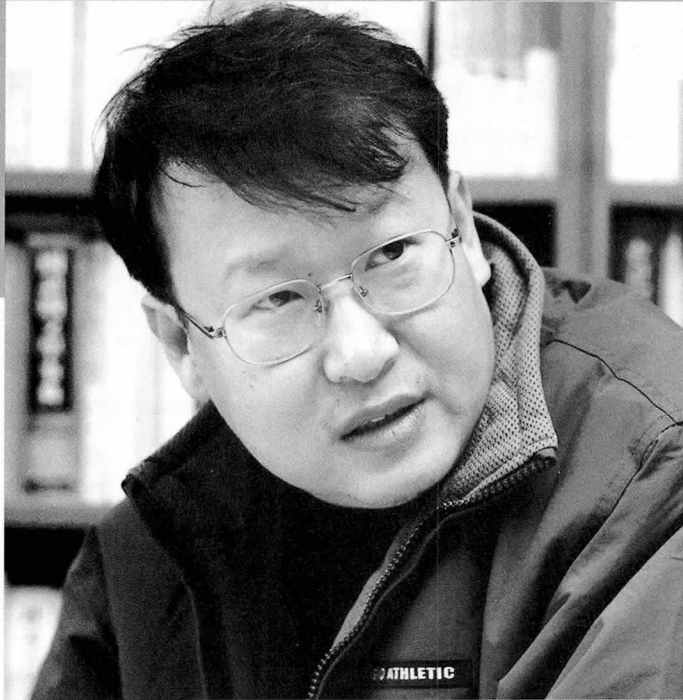


조선시대 시정의 인간군상이 펼쳐는 욕망 읽기

《조선 사람들, 혜원의 그림 밖으로 걸어나오다》 퍼낸 강명관 교수



강명관 교수(45, 부산대 한문학과)가 펴낸 《조선 사람들, 혜원의 그림 밖으로 걸어나오다》(푸른역사)를 보면 명절날 텔레비전 브라운관에서 펼쳐지던 마술이 생각난다. 여자를 상자에 넣어 조각내고, 천을 한번 들었다 놓으면 없던 사람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소박한 마술 말이다. 지금은 많이 식상해졌지만 텅 빈 신사모에 색실을 채워 넣고, 실 대신 토끼나 비둘기를 꼬집어올리는 마술도 볼 만했다.

혜원의 작품 주제별로 독해해

신윤복의 화첩 《혜원전신첩》에 실린 그림 30점을 풍속사적으로 해설한 이 책에서 강교수는 비둘기 대신 조선시대 사람들을 한명씩 두명씩 꺼내서 보여준다. 그림이라는 평면에 갇혀 말없이 정지해 있던 인물들이 갑자기 피가 돈 것처럼 다시 살아서 움직이니 마술이 따로 없다. 이 책은 혜원의 그림을 정지화면이 아닌 '동화상'으로 읽어내 풍속화가로서 혜원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혜원을 다룬 논문들은 이상하게도 그림의 구도나 배치, 색채의 미적 성취만 따질 뿐, 내용은 뒷전이더군요. 명색이 조선 최고의 풍속화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풍속의 속살은 놔둔 채 겉저고리만 닦도록 만지작대니 답답한 노릇이죠. 얼마 전 학교에 개설됐던 풍속사 교양강좌에 들어갔다가 실망한 이후 직접 독후감을 내놓게 됐습니다.”

물론 이 책은 독후감이 아니라 산더미 같은 사료를 뒤집으면서 그림에 숨은 의미를 캐낸 대중적 학술서다. 그림 한편을 단독으로 다루기도

신윤복의 화첩 《혜원전신첩》에 실린 그림 30점을 풍속사적으로 해설한 이 책에서 강교수는 조선 사람들의 리얼리티가 무엇이었는지 보여준다. 농민, 별감, 기생, 뚜쟁이 할미까지 그림이라는 평면에 갇혀 말없이 정지해 있던 인물들이 다시 살아나 낯설고 은밀하지만 정감 가득한 그들의 일상을 펼쳐놓는다. 이 책을 통해 풍속화가로서 신윤복의 진면목은 유감 없이 드러났으며, 그 속의 조선시대는 팽팽한 활기로 되살아났다.

하고, 비슷한 주제일 경우 여러 폭을 동시에 감상하는 등 총 13편의 글로 신윤복의 작품세계를 복원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혜원의 그림에서 항상 떠나지 않는 주제는 '성'과 '유희'다. 과부택이 교미중인 개를 쳐다보며 미소를 흘리고, 뒤뜰에서 낫술에 취한 양반이 계집종의 손목을 끌고 희롱하며, 기생을 두고 기방 앞에서 악소배들이 난투극을 벌이는 등 농밀하고 야릇하며 노골적인 성풍속이 넘쳐나는데, 그걸 묘사하는 작가의 붓끝은 너무나도 능청스럽다. 강교수는 여기서 당대의 도덕률을 비꼬는 신윤복의 비판적 시선을 잡아낸다.

놀이하는 인간으로서의 본질 정확히 그려

“혜원은 인간의 본질을 정확히 본 화가였어요. 노동하고 이상을 좇는 것도 인간이지만, 놀고 싶고 성적 욕망을 표현하고 싶은 것도 인간이거든요. 아무리 놀러도 놀리지 않는 남녀간의 육체적 이끌림을 그림으로 발설함으로써 혜원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게 바로 리얼리티 아니냐'는 것이었겠죠.”

사실 풍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 혜원의 그림만큼 소중한 자료도 없다. 우선 농민과 어민 그리고 별감, 포교, 나장, 기생, 뚜쟁이 할미까지 시정의 인간군상들이 대거 등장하는데 풍속화를 통해 우리는 '계급'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선술집〉은 조선시대 술집 풍경을 엿볼 수 있는 유일한 그림이다. 곱게 차린 주모가 마당 앞에 술을 걸고 데운 술을 퍼주고, 술꾼들이 그 앞에 선 채로 불과하게 낫술을 걸치는 풍경만큼 생생한 역사의 증언이 어디 있겠는가? 이 그림 속에선 마침 조선 후기 유흥계의 총아 별감이 안주를 집어먹고 있는데, 친구로 보이는 의금부 나장은 그만 먹고 가자고 성화를 부린다. 〈이불은 왜?〉는 한편의 익살극을 포착한 그림이다. 기생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사이, 몸종과 오입쟁이가 방 안에서 일을 벌이고 있다가 황급히 이불을 덮는 모습이 역력하다. 아무 일도 없는 척하는 몸종의 새침한 얼굴과 하얗게 질린 남자의 표정이 무척 대조적이다.

“혜원의 그림이 내 관심을 끈 이유는 그것이 ‘인간’을 그림의 전면에 배치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을 그린 그림은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 예를 들면 자식들의 성적표에 속상해하는 엄마, 직장 상사로부터 편지를 듣는 사내 등의 모습은 그림에서 보기 어렵잖아요. 사진도 마찬가지죠. 가장 친숙한 것이 나중에 남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회화에서 일상의 배제는 정말 기이한 현상입니다.”

인간의 살냄새 찾아다니는 풍속사가

강교수의 말을 듣다 보면 그가 ‘한문학자’가 아니라 ‘풍속사가’란 느낌이 든다. 마치 에두아르트 폭스처럼 그는 엄숙주의에 가려진 인간의 살냄새를 고독하게 찾아다니고 있다. 그의 학문적 여정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궁금증이 풀릴 듯도 하다. 강교수는 <조선 후기 여항문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조선후기에 사회세력으로 대두한 서울의 중간계급인 여항인의 문학양식과 의미를 탐구한 이 책으로 풍속과 문학의 연관에 대한 강교수의 탐사는 본격화됐다. 1999년 펴낸 <조선 후기 문학예술의 생성공간>(소명출판)은 풍속사, 사회사, 음악사, 미술사를 포괄하는 방대한 지적 편력을 담아내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조선 후기 서적의 수입·유통과 장서가의 출현> <조선 후기 경화세족과 고동서화 취미> 등을 천착해 학문적 미담지를 개척해왔다. 사실 이번 책을 쓰기 위한 문헌연구도 이미 반 이상 마친 상태였다. 그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조선시대 전반을 통관하는 풍속사 저술을 계획중이다.

강교수의 주된 일과는 <조선왕조실록>이나 <여항문학총서> 같은 영인본 수천질을 앞에 두고 ‘인간’에 대해 말하고 있는 자료를 찾아내는 일이다. 젊은 시절 왕조실록의 번역사업에도 오랫동안 참가한 경험이

있는 그는 자료 독과에는 남다른 수완이 있다고 자부했지만, 혜원 신윤복 앞에서는 두손 두발 다 들었다고 한다. 아무리 자료를 뒤져도 혜원에 대한 기록은 구우일모(九牛一毛)에 불과했다. 생물년과 가계, 호암 문일평이 남긴 “너무 비속한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도화서에서 쫓겨났다”는 내용이 거의 유일하다.

혜원과 어울려 시정을 누비고 다녔을 중인계층 문인들의 문집에도 혜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하니, 그것 자체가 수수께끼다. 그림 속 풍경도 단

푸른역사/A5변형/248면/15,000원

서가 부족해서 수없이 애가 났다. 달빛이 은은하게 내리비치는 도회의 담장 밑에서 남녀가 마주보고 있는 <밀회>의 경우 주인공들이 연인인 것

은 분명하나 무슨 “살가운 설명을 붙일 수”가 없었다. 막 만난 것인지 헤어지려는 것인지도 분명치 않고, 다만 여자의 신발이 비싼 ‘갓신’인 것으로 봐 꽤 부유한 층으로 짐작할 뿐이었다. 그리고 남자의 손이 도포 속에 들어가 뭔가를 뒤적거리는 모양에서 “무언가 정표를 주려는 것”이라라는 추론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아무튼 강교수는 이 책에서 그림이 보여주는 모습을 실마리 삼아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해 18~19세기 조선사회의 이면을 흥미롭게 복원하고 있다.

“체대로 된 풍속사를 한권 쓰고 싶습니다. 요즘 미시사적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책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그것을 정통 역사학의 방계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읽을거리에 치우친다는 것이죠. 하지만 풍속사와 정치·사상사는 서로 동등한 것입니다. 가령 어떤 특정한 시기에 특정 음식을 누가 독점했는지에 대한 연구보다 중요한 사안이 있겠습니까? 문학도 마찬가지죠. 이런 일상적·사회적 문맥을 무시한 채 문학텍스트만 논의하는 것은 허망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 부산·강성민 기자

이 시대의 ‘서광’(書狂)에 대한 소묘

강명관 교수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소문난 ‘학구파’다. 그의 책은 풍부한 학식과 시원시원한 문장으로 읽는 사람을 매료시킨다. 실제로 만나보니 그는 생각보다 풍채가 좋았다. 몸이 튼튼해야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 같다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래봐도 몸이 약한 편이에요. 고미숙 선생과 <근대 계몽기 시가 자료집(전3권)>(성균관대출판부)을 준비할 때였어요. 작업을 마치고 버스 타고 집에 가는데, 태어나 처음으로 낮잠을 잤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도착해 쓰러졌죠.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당분간 아무 것도 하지 말라더군요. 1년 동안 강의만 겨우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과로했기에 그렇게 됐을까? 강교수는 이 학교에 부임한 지 7~8년 됐는데, 항상 새벽 6시면 연구실로 출근한다. 그렇게 일찍 나와서 일 하냐고 물으니 “책 읽지 뭐하냐”는 답이 돌아온다. 거기서부터 기가 질리기 시작하는데, 그는 “지난 몇 년간 조선시대 문집 영인본 3천권을 모았는데, 현재 1천7백권까지 읽었다”며 내쳐 덧붙인다.

이번 책은 사실 강교수에게는 ‘몸풀기’에 지나지 않는 듯했다. 그동안 혜원의 그림을 감상하고, 조선풍속사를 연구한 기본 바탕 위에 대중들의 입맛을 고려해서 풀어내기만 하면 됐던 것이다. 남들보다 더 많이 읽은 만큼 그가 앞으로 펴낼 책들은 무궁무진하다. 현재 단행본 네권 분량으로 우리 책의 역사를 정리한 원고를 출판사에 넘겨 놓은 상태다.

서광(書狂)은 서치(書癡)를 알아본다고, 강교수는 같은 학교 사학과 객차십 교수와 술 한잔을 두고 베틀하는 사이인데, 객교수 역시 소문난 공부벌레라고 한다. 한번은 술자리에서 학자의 본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 이랬다며 알려준다.

“학식은 ‘삼겹살’과 같다고 생각해요. 돼지고기 비계가 천천히 살코기로 변해가듯이 말이예요. 끊임없이 읽는 것이 쌓이고 덧칠돼서 진정한 앞으로 전화되는 것이죠. 학문은 무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조선처럼 큰배를 바다 위에 진수시킬 때처럼 육중한 맛이 있어야죠.”

